

**제약·바이오 혁신 지키는 특허심판, 현장과 함께 만든다**

- 특허심판원, 제약·바이오 기업 등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,
인공지능 활용 등 심판 현안 논의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특허심판원은 9. 11.(금)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강남구)에서 제약·바이오분야의 주요 기업* 및 대리인들과 간담회를 갖고,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**, 인공지능(AI) 활용 등 최근 업계의 주요 관심사와 현장이 바라는 심판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.

*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종근당, 한미사이언스, HK이노엔, 한국화이자, 한국 머크 등

** 의약품 허가 절차 등으로 특허권을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 내에서 연장해 주는 제도

이번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과 제약·바이오분야 심판장이 참석하여 ▲최근 논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방향과 심판절차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 또한 ▲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(AI) 활용 방안과 인공지능(AI)으로 작성한 허위·조작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제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.

이 밖에 ▲심판사건 배당 및 일정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편차 완화 방안 ▲구술심리 등을 통한 심판부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심판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▲심판 고객 관점에서의 심판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.

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“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판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”며 “제약·바이오 기업의 기술혁신과 원활한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간담회 개요 / 사진은 행사 후 배포

담당부서	특허심판원	책임자	과 장	최일승 (042-481-5879)
	심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주영 (042-481-8444)

□ 간담회 개최 목적

- 제약·바이오분야 특허분쟁 동향, 심판제도·정책 개선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특허심판 절차를 이용하는 주요 IP 담당자와의 현장소통 추진

□ 간담회 개요

- (일시/장소) '26. 9. 11(금), 15:30~17:30/한국지식재산센터 장영실홀(지하1층)
- (참석자) 특허심판원장, 수석심판장, 제약·바이오분야 IP 실무자 등 23명
 - (심판원) 특허심판원장, 7그룹 수석심판장, 심판장 등 6명
 - (기업측) 제약바이오분야 기업의 IP담당자, 주요 대리인 등 17명
- (주요내용) 특허심판원의 주요 추진정책 및 법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, 심판청구 동향, 심판절차에서의 불편사항 등

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15:30 ~ 15:35	■ 개회	특허심판원장
15:35 ~ 15:40	■ 인사 및 소개	참석 전원
15:40 ~ 15:50	■ 특허심판원 주요 심판정책 소개	심판정책과
15:50 ~ 17:20	■ 자유토론	참석 전원
17:20 ~ 17:30	■ 정리 및 폐회	특허심판원장